

# 엄마 불교가 뭐예요?



호기심이 한창일 나이의 아이에게 '불교'를 쉽게 설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내 자녀를 불자로 만들고 싶다면,

서점의 불서코너를 유심히 살펴보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재미를 곁들여 전하는 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저학년 자녀와 함께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면 그림에 신경을 써서 책을 고르는 것이 좋다. 최근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한 정채봉 씨의 동화 '오세암'을 만화로 엮은 <오세암>(유영운 그림, 파랑새어린이)이나 동승이 절에서 겪게 되는 에피소드를 담은 <동승과 노스님>(안태성 글/그림, 동아일보사), <만화로 보는 부처님 전생 이야기>(정수일 글/그림, 운주사) 등은 그림만으로도 아이들의 호기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스님의 일대기를 만화로 엮은 책도 여러 권 출간되어 있다. 성철 스님의 삶과 수행을 그린 <성철 큰스님>(임기훈 글/그림, 불교만화사)이나 편양 언기 스님의 일대기를 담은 <왕눈이 스님>(정수일 글/그림, 운주사) 등이 권장만하다. <달라이 라마>(김영만 글/조은숙 그림/꿈동산)는 티베트인들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의 일생과 철학을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그린 책이다. 달라이 라

# 아하 그렇구나!



마의 어린 시절에서부터 망명정부의 지도자로서 티베트 해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가 걸어온 생애를 담고 있다.

<엄마랑 아빠랑 절에 갔어요>(홍주연 엮음, 가교)는 아이와 함께 볼 수 있는 '사찰안내서'다. 일주문에서부터 법당 안의 벽화에 이르기까지 절의 여러 건물과 탑, 범종, 석등, 풍경의 유래와 기능 등을 쉬운 말로 안내하고 있다. 절의 건물과 불구 그리고 절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게 어떤 예절을 지켜야 하는지 등 불교와 절에 관한 기초 지식을 얻을 수 있다.



## 고학년 자녀와 함께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는 <불생경>, <자타카> 등 경전 속의 설화를 바탕으로 한 책이 많이 출간되어 있다. <아름다운 우리 사찰 13가지 숨은 이야기>(이규성 글/그림, 운주사)나 <부처님이 들려주는 108가지 이야기> 등은 만화로 엮은 에피소드와 함께 도움말이 들어 있어 이해를 돕는다. 순천대 문화예술헌과 교수인 윤승운 화백이 그린 <항기로운 부처님 나라>와 <아름다운 부처님 나라>도 불교 설화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기에 좋다. <항기로운 부처님 나라>는 인도, 중국편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과 깨달음을 얻는 과정, 제자들과의 일화를 소개한다. <아름다운 부처님 나라>에서는 자장 출사와 진표 출사의 이야기를 비롯해 감사와 내소사 법당, 전등사 은행나무에 얽힌 설화를 만날 수 있다.

경전으로는 <어린이 천수경>(김효성 지음, 이정문 그림, 불광출판부)과 <만화로 보는 부모은중경>(오거서 불경만화기획연구팀 엮음, 오거서) 등이 쉽게 읽힌다. <어린이 천수경>은 <천수경>의 내용과 진언을 외우는 가

답을 여러 일화를 들어 설명하는 책으로, 재미있는 우화에 이정문 씨의 삽화가 함께 엮여져 어린이들이 지루하지 않게 읽으며 천수경을 익힐 수 있다. <불교EQ>(우학 스님 지음, 좋은인연)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읽으며 불교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에 좋다. 수년간 어린이 법회를 지도했던 대구 관음사 주지 우학 스님이 어린이들에게 받았던 질문과 그 답을 간추려 놓은 책으로, '부처님은 왜 황금색인가?' '고기를 먹으면 안되나요?' 등 어린이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궁금증을 명쾌하게 풀어준다.



# 부처님이 정말 좋아요



# 1318 '심성과 지혜' 가꿔봐

청소년기의 책읽기는 정서적 안정을 취하며 바른 가치관을 함양하고, 지적 소양을 기르는데 초점이 맞춰지기 마련이다. 정서적으로 민감해지는 사춘기를 건강하게 보내는

것도 중요하거나 대학입시 또한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방향을 맞아 불서를 통해 인성과 지성을 동시에 가꾸는 시간을 가져보자.



영주 봉황산 중턱에 자리잡은 부석사. 소백산맥과 무량수전의 조화가 절경을 이룬다.

현대불교신문 자료사진

## #문화재 가치 알고싶다



방학숙제를 위해서라도 문화유산답사가 필수인 계절. 이왕이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고, 책을 통해서나마 문화유산을 바라보는 안목을 키우고 가보면 어떨까.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에 기대서서>(최순우 지음, 학교재)는 이제 문화유산 해설서의 고전이 된 책이다. 저자의 심미안과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애정이 가득 담긴 전통미학의 입문서라 할 만하다. 수려한 문체가 멋스러운 책이다.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김현준 지음, 화림)는 사찰의 크고 작은 조형물의 상징적 의미를 파헤친 책이다. 저자는 사찰을

불교의 정신이 창출한 하나의 생명체라는 관점에서 사찰과 상징을 바라보고 있다. 1991년에 첫 출간돼 세련된 디자인이나 칼라사진을 찾아볼 수는 없지만 교리에 기초한 설명이 충실하고 도면도 적절하게 곁들여져 사찰의 상징물들을 설명해주는 책으로서의 가치는 여전하다.

박물관에 갈 계획이라면 <나는 공부하러 박물관 간다>(이원복 지음, 효형출판)가 도움 된다. 유물과 현대의 시간적 간극을 뛰어넘는 '시간여행의 비결'이 소개돼있는 책이다. 그 비결은 바로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유물을 읽어내고, 대화를 주고받는 것이다. 이 책은 '함초롱함' '자연스러운' '답백함' '올곧음' 같은 67가지 주제를 선정하고, 그에 어울리는 유물들을 찾아 설명하는 방식으로 구성돼 있다.

## #마음을 닦아 보자

마음을 닦는 데는 경전이나 명상서적이 좋겠다. 다만 경전은 어려울 수 있으니 청소년 눈높이에 맞춰 다시 쓴 것들로 골라보자. <물, 뱀이 마시면 독, 소가 마시면 우유>(손승현 지음, 조계종출판사)는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엮은 본언부의 경전 가운데 새겨볼 만한 가르침들을 가려 뽑은 것이다. 경전의 가르침을 현대인들의 삶과 관련해 설명하며 그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이 책은 경전 한 구절을 소개하며 현대인들의 삶과 관련해 그 의미를 살펴보고 있다. 포교 일선에서 청소년들과 부대끼며 일한 교법사들의 경험과 안목이 담겨 있어 보다 친근하게 부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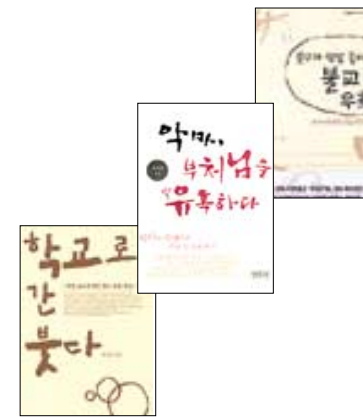
을 이해할 수 있다.

<벽 틈으로 바람 들어오듯 마음 틈으로 욕심 들어온다>(이옥태 외 지음, 시공사)도 청소년용 불서로 적합하다. <아함경>에서 가려 뽑은 97개의 짧은 이야기로, '나를 알기 위하여' '욕심 없이 살기 위하여' '깨닫기 위하여'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등으로 구성됐다.

<365일 부처님 말씀>(윤창화 엮음, 동승동)은 <아함경> <법구경> <화엄경> <숫타니파타> <열반경> <사십이장경> <불본행경> 등의 경전에서 실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좋은 문구들 뽑아 추린 책이다. 1월에는 '자비와 보시' 그리고 아름다운 마음가짐, 2월에는 '선행과 악행', 3월에는 지혜로움과 어리석음'과 같이 우리 생활과 관련이 있는 주제만을 분류하고, 그에 어울리는 경구들을 하루에 하나씩 읽을 수 있도록 날짜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 #재미와 교훈을 동시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으며 교훈도 얻을 수 있다면 그야말로 일석이조. <불교가 정말 좋아지는 불교우화 1·2>(이용범 지음, 수회재)는 <백유경> <불생경> <아함경> <현우경> 등 다양한 경전에서 뽑아낸 우화 266편을 엮은 것이다. 간결한 형식 속에 많은 가르침을 담고 있어 우화는 지혜의 보고라 불린다. 우화라 하면 흔히 이솝우화를 떠올리지만, 불교경전에도 그에 못지않은 질과 양의 우화가 전래되고 있다.

'내 아이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라는 부제가 붙은 1권에는 생활에서의 지혜를, '복 밭에 씨를 뿌려라'라는 부제의 2권에는 불교적 지혜를 주로 담았다.

<악마, 부처님을 유혹하다>(윤창화 엮음, 민족사)는 <아함경>에서 부처님과 악마의 대화 장면을 묶은 것이다. 악마가 이 세상에

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번뇌 망상과 이별하고자 하는 수행자라고. 한걸음대장경을 바탕으로 교훈적이거나 수행에 도움이 되는 장면들을 읽기 쉽게 일화 형식으로 구성해 놓아 재미와 감동이 쏠쏠하다.

학교생활을 원만히 하도록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라면 <학교로 간 붓다>(최시선 지음, 시공사)를 읽게 하는 것도 좋겠다. 이 책은 학교를 배경으로 부처님이 아이들 생활을 살펴주며 전해주는 지혜로운 가르침들을 그려낸 것이다. 가슴을 하더라도 가슴해서 시간만 낭비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도 만나보고, 신에도 올라보고 하면서 나를 되돌아보고 주위를 보는 시선을 기르라고 말한다. 또 인터넷 서핑을 해도 그냥 멍하니 앉아서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필요한 정보도 얻고 재미를 찾아보라고 제안한다. 저자는 너무나 사소하게 보이는 이런 것들이야말로 청소년들이 원하는 관심과 조언일 것이며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나아가게 하기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